

구 고테이 요정

가파른 언덕이 많은 시노노메초 지구에는 한때 오타루의 부유한 상인들의 창고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고테이 요정은 단골손님만이 게이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흥의 장으로서 1937년에 이 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요정은 통상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회합에 이용되었습니다. 2층 건물이 몇 채 이어져 있어 안에서 오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개인실과 무대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고테이 요정은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요정의 지점으로 ‘스키야즈쿠리(다실풍 건물 양식)’라는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다실의 간소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내부를 꾸몄습니다.

중앙 건물의 1층에는 다실, 2층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다다미 바닥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공간 옆에는 춤과 음악을 선보이기 위한 편백나무 바닥의 무대를 갖춘 방이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이 지구에는 비슷한 요정이 적어도 5곳이 있었으며, 샤미센(일본의 전통 현악기)과 고토(일본의 전통 현악기로 한국의 가야금과 유사함)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전후가 되자 무역항으로서 오타루의 중요도는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었고, 많은 상인과 해운상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던 청어잡이는 남획으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고테이 요정은 1957년에 개인 별장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건축적 특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